

한국적인 해양문학의 새로운 발견

《한국해양문학선집》(전8권) 발간을 보며

조규익

승실대 교수·국문학

“과연 우리에게 해양문학이 있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입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음이다. 첫째는 우리가 바다에 둘러싸여 수천년을 살아왔으면서도 이제껏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그것을 소재로 하여 작품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적 인식이고, 둘째는 해양문학에 관한 인식의 서구적 편향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열등감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저변을 찬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들이 사려깊은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쉽사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분명 우리에게도 해양문학은 있었다. 이 시점에서의 급선무는 우리의 바다와 해양문학을 찾아내어 ‘새롭게 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체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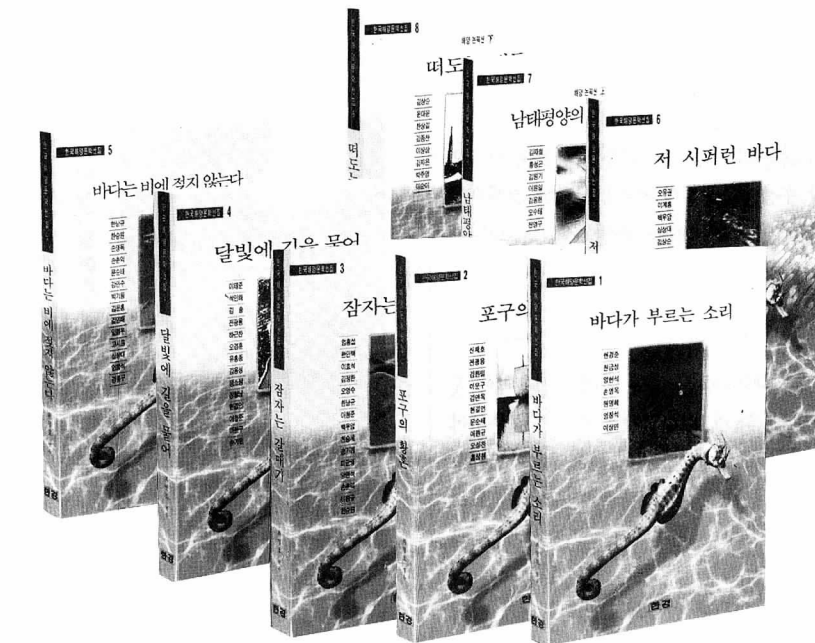
첫째, 해양문학에 관한 서구적 잣대를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주체적인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소외시켜 왔던 바다를 살려내야 한다. 그것은 물이 중요한 만큼 바다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셋째, 앞으로 무한히 지속될 한국문학의 무대나 공간 확장을 위해 바다를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내면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굴레에 갇힌 채 살아왔다. 해양산업의 선진국답지 않게 대물림된 바다기피증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바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바다는 항상 우리 삶과 동떨어진 별세계로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바다를 지향하는 원초적 욕구도 대개 억제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하는 상상력의 발원 자체가 애당초부터 봉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호머), 《옛 수부(水夫)의 노래》(코울리지),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이즈),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백경》(멜빌), 《울리시즈》(조이스) 등 서양문학사에는 빛나는 해양문학작품들이 많다. 그들의 문학은 해양문학으로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까지도 그것은 중요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적 유산을 소유한 나라는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부일 뿐이며, 또한 그것들만이 해양문학의 보편적 기준일 수도 없다. 따라서 서양의 해양문학을 모방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해양환경과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의 인식과 체험, 문화가 있다. 이들과 차별성을 지닌 해양문학의 패러다임을 찾고 수립하는 일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렇다면 우리 해양문학의 존재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표로 삼을 만한 한국적인 해양문학의 모범적 선례들은 무엇일까. 전자는 문학사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시적 문제이며, 후자는 현재 창작되고 있는 해양문학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제이다. 산문과 운문을 포함한 고전문학 작품들 상당부분에 해양문학은 이미 발아되어 있었고, 조선조의 각종 야담·표류담·사행기 및 사행시 등에 이르러 비교적 완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면의 연구업적들을 묶어 펴낸 《해양문학을 찾아서》(조규익·최영호 엮음, 집문당)는 한국 해양문학의 존립가능성에 대한 통시적 모색이었던 셈이다.

그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찾아낸 현경준·양현석·엄창석·김원일·김만옥·홍성원·한남규·이창준·송기원·이균영·손춘익·유홍중·정형남·임철우·심상대·강홍구·백우암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소설 60여편은 현대 한국 해양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죽음의 발에서 삶을 건져오는’ 바닷사람들의 피땀 어린 이야기인 15편의 해양 년픽션들은 한국

해양문학이 이루어낸 또하나의 결실이다. 이들이 거둔 문학적 성과는 향후 한국 해양문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문단에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이다. 그들이 비록 해양문학의 전문적인 창작을 표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신들의 문학세계와 바다를 접목시킨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해양문학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점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작가씩, 또는 한 작품씩 존재할 때에는 그 모습을 거의 알아 볼 수 없었으나, 이것들을 찾아내어 연결시킴으로써 해양문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와 개념이 완결된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롭게 만나는 ‘바다’

이들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듯이 문학에서의 바다는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정신적인 그것이다. 원양 함선의 선원, 원·근해에서 그물을 당기는 어부, 배를 만드는 도목수나 조선소 노동자, 개펄을 헤집으며 바다를 건지는 아낙네들... 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녹아 있는 심리적 공간이 바로 바다이며, 그것을 얻어 형상화시킨 미적 실체가 바로 해양문학 작품이다. 경우에 따라 바다에서의 삶과 그에 대한 동경을 날것 그대로 그려 놓은 작품이나 인간실존의 근원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바다가 그려진 작품 모두를 해양문학의 범주에 넣고자 하는 관점의 타당성도 여기서 인정될 수 있다.

이들의 문학적 성과를 묶어낸 일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한국 해양문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점이다. 다시 말하여 해양문학은 더이상 서양만의 전유물이거나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문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뚜렷한 목표의식만 갖는다면, 우리의 문학이나 문화에도 찾아낼 만한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시점에서 이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당위성으로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 선집의 편집자 최영호교수가 한국 해양문학의 발굴과 체계화에 힘써 온 3년간은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은 기간이었으며, 국제화·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신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이 한껏 제고된 기간이기도 하였다.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된 이래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대상이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바다와 관련된 기관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그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프로의식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의 작업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역시 우리에게 이미 바다가 있었고, 우리 나름의 해양문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양문학 역시 지속과 변이라는 문학발전의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잠재 상태에 놓여 있는 해양문학의 존재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걸맞은 자리매김을 해주는 일은 비평가와 창작자에게 부여된 공동의 과업이다.

바다라는 무대의 한국적 의미를 찾고, 그 바다에서 투쟁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들이 한데 묶이는 미적 구조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세기의 해양문학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숨겨져 있던 바다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옛날의 바다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별세계였다면, 새롭게 만난 바다는 우리와 핏줄이 통하는 삶의 현장이다. 21세기의 가능성이 바다에 있는 만큼, 우리 문학 또한 대양(大洋)으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한경/전8권/A5신/각 350~436면/각 6000원